

“호랑이 다큐 보며 ‘뇌안탈’ 연구했죠”

(배역)

‘아스달 연대기’ 유태오



‘아스달 연대기’ 속 라가즈

초반 분위기 잡아주는 캐릭터 내면의 여성 보여주는 느낌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상상으로 표현 참 재미있어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속 라가즈는 초반 극의 분위기를 잡아준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에 없던, 창조된 종(種) ‘뇌안탈’을 대표하는 인물 라가즈로 열연한 배우 유태오(38)를 10일 광화문에서 만났다. 여성 넘치는 특수분장을 짝 지우고 만난 그는 진중한 신사였다.

독일 출생으로 2009년 영화 ‘여배우들’로 데뷔, ‘레토’로 지난해 칸 영화제에 초청받는 등 주로 영화계에서 활동해온 그는 ‘아스달 연대기’가 첫 드라마이다.

“김원석 PD님도 저를 처음부터 라가즈로 생각하고 만나셨고, 저도 시나리오를 보고 이미 철저히 준비했어요. 국내에서는 제가 신인이지만, 제가 처음 대본을 읽는 것을 듣고 모든 사람이 긴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겠다 다짐했어요. 대본 리딩 후 선배님들께서 ‘분위기가 잡혔다’ 이야기해주셔서 안심했죠.”

유태오가 라가즈를 연기하면서 가장 주력한 부분은 ‘여성’을 살리는 것이었다. “제 역할은 분량과 관계없이 초반 드



라마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뇌안탈은 창조된 종인데, 대본에 호랑이 털 같은 옷 입고 있다고 쓰인 한 줄을 보고 캐릭터 연구를 시작했죠. 호랑이와 사자 다큐멘터리를 특히 많이 봤어요. 심지어 ‘라이언킹’도 봤고요. 고양이와 동물은 까치발로 뛰어나네요. 라가즈도 자세히 보시면 맨발에 까치발로 뛰어나는 여성이 느껴질 거예요.”

여성성이 잘 표현된 것 같냐는 물음에 그는 “사회 속에서 저는 부끄러움 많은 태오, 다정한 태오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여성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느낌이었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라가즈는 아사 가문의 일원인 아사훈(추자현 분)과 교감, 은성을 비롯한 이그트(인간과 뇌안탈 사이의 혼혈) 쌍둥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유태오는 4회까지 방송한 ‘아스달 연대기’를 어떻게 봤느냐는 물음에는 “기존

에 판타지극, 가상의 언어를 배경으로 한 외국 작품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작품의 상상력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다”라며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상으로 표현한 것이 참 재밌다”라고 밝혔다.

“은성이 말 타는 상상을 하는 장면만 봐도, 실제로 인간들이 그랬던 순간이 있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재밌죠. 자주 다니는 길이 진짜 길이 되고, 장터가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흥미로워요. 인간이 무엇이고 원초적 본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면서 자연과 사회를 비교할 수 있는 장치들도 인상 깊어요.”

독일 출생으로 외국에서 연기 활동을 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한국에 건너온 그는 “필요를 비롯한 한국 영화를 워낙 좋아했던 데다가, 외국에서 연기하기에는 동양인이 맡을 수 있는 배역이 너무 한정적이라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처음에는 언어 문제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생활 언어를 익힐 수 있는 채소가게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언어의 장벽을 깨려 노력했다. 인터뷰로 만난 그는 누구보다도 세 생감을 진지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유태오는 지난해 칸 초청과 이번 ‘아스달 연대기’를 계기로 더 많은 작품을 통해 관객 또는 시청자와 만날 계획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드라마 ‘초콜릿’, 그리고 영화 ‘버티고’,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담보’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항상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내용도 재미없어지죠. 반대로 ‘돈 벌자’ 생각하면 재미없어지고요. 그저 저를 세상에 소통하고 표현할 길을 찾는 뿐입니다.”

연말연시

김수현, 다음달 1일 전역...“여러 작품 검토 중”

“영화·드라마 가리지 않겠다”

배우 김수현(31·사진)이 군 복무를 마치고 다음 달 1일 제대한다.

10일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23일 현역으로 입대한 김수현은 1사단 수색대에 지원해 복무했다.

김수현은 어린 시절부터 앓은 심장 질환으로 첫 징병검사 당시 대체 복무에 해당하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결국 1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했다. 그는 최전방 지역 위험성 높은 임무를 수행하는 1사단 수색대에서도 일병에서 상병, 상병에서 병장 진급을 각각 1개월씩 앞당길 정도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2007년 데뷔한 김수현은 드라마 ‘드림하이’, ‘해를 품은 달’, ‘별에서 온 그대’와 영화 ‘도둑들’,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으로 한류스타로 우뚝 섰다.



소속사는 김수현이 “전역 전에 뷰티 브랜드와 전속 모델 계약을 했으며 영화 드라마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여러 작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승대·황현희 등 공개코미디 부활 위해 뭉쳤다

코미디TV ‘스마일킹’

매주 일요일 방송

20여 년 만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복귀한 심형래부터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만나는 박승대, 김정환, 김대범, 황현희까지...

선배 코미디언들이 공개코미디 부활을 꿈꾸며 코미디TV ‘스마일킹’으로 뭉쳤다. 지난 4월 28일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쇼, 아츠, 화제성이나 시청률 면에서 미미하지만 한발씩 나아가고 있다.

심형래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몇 십년 동안 코미디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자고 했을 때 망설여졌다. 지금 코미디를 하면 먹힐지 굉장히 두려웠다”라고 털어놓았다.

박승대 역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만에 복귀했다. 그는 “옛날 개그는 보통 무대 위에서 자기끼리 한다면, 이제는 소통 개그를 하려고 한다. 개그맨들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모여서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들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심형래를 초대할 때 대해서도 “우리가 하기에 미흡해 가장 사랑하는 선배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다.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최근 KBS 2TV ‘개그콘서트’가 장기 부진에 빠져있고, ‘개콘’과 tvN ‘코미디빅리그’만이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명맥을 잇는 가운데 ‘스마일킹’이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방송가 관심이 쏠린다.

‘스마일킹’은 매주 일요일 밤 9시 방송.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야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2019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다저스:LA에인절스>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퍼퓸(재)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시사기획 창(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5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버 55 뽀뽀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실화탐사대 1~2부 스페셜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레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30 여름야 부탁해	30 글로벌24 55 퍼퓸(재)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헌법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늘밤 김제동	00 퍼퓸	0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11]	35 UHD 숨터 4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0 회사 가기 싫어 2019	05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걸작 다큐멘터리(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0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45 마사와 곰(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1~5
07:00 로보가 폴리	13:00 다큐 오늘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뽀뽀 뽀로로	13:40 사건 브리핑-안전상황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파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똥똥똥 유치원1~2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파란 나라 필리핀 2부 한없이 투명한 바티네스>
08:30 몬가트	15:30 뽀뽀뽀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45 출동! 슈퍼원스(재)	<나무에 취하다 - 초록은 행복이여라>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원더볼즈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2:45 건축탐구 - 집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6:30 똥똥똥 유치원1~2	23:55 미래교육 플러스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1일(음 5월 9일 己卯)

<p> 36년생 참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48년생 준비되어 있다면 즉시 실행해도 좋은 판도이다. 60년생 과감하게 결정하고 용기 있게 진행해도 된다. 72년생 지금이 적기이니 마무리 하는 것이 낫다. 84년생 어울린다면 목표점에 다가서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4, 88</p>	<p> 42년생 지나치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54년생 맹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66년생 살피만 보아도 쉽게 파악 될 것이다. 78년생 부담 없이 처리해도 무방하다. 90년생 지엽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대국을 바라보라. 행운의 숫자 : 70, 81</p>
<p> 37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것이 가능하다. 49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간벌의 차이로 행운을 잡게 된다. 61년생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하면 무난하리라. 73년생 막연하다면 공허하다. 85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행운의 숫자 : 09, 60</p>	<p> 43년생 공허한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자. 55년생 서로 이해하고 양보 하라. 67년생 다수인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79년생 호기심의 강도를 더하는 비밀이 보인다. 91년생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하자. 행운의 숫자 : 95, 22</p>
<p> 38년생 탄력을 받게 되리라. 50년생 원거리로부터 오는 행운이 앞차겠다. 62년생 수상하다면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74년생 그나마 더운같이 할 정도는 되겠다. 86년생 세치의 혀를 잘못 사용하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불운을 당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9, 74</p>	<p> 44년생 주의하라. 56년생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 아니 된다. 68년생 선함을 인식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넘어갈 수 있다. 80년생 큰 것은 놓치고 작은 것만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92년생 마무리까지 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14, 09</p>
<p> 39년생 필요하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 51년생 표면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임하라. 63년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때다. 75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미흡하다. 87년생 중차대한 소임을 맡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6, 03</p>	<p> 45년생 일장일단이 있음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 57년생 구분하지 않고 함께 다루는 것도 괜찮다. 69년생 이채로운 길상이다. 81년생 짧은 시간 동안에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 93년생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61, 20</p>
<p> 40년생 기묘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변이 예상된다. 52년생 필연임을 알아야 한다. 64년생 남에게 말도 못할 가슴 답답한 일이 생기리라. 76년생 지금은 즉행해야 할 급한 형세이다. 88년생 드러나지 않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녀야겠다. 행운의 숫자 : 78, 34</p>	<p> 34년생 대책 마련으로 부실하게 된다. 46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58년생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만 하는 고동이 있다. 70년생 해는 없으리라고 보니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 82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해안이 떠오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78</p>
<p> 41년생 노력에 대한 알찬 성과가 따른다. 53년생 강풍이 불 것이니 우선 은신처로 피하고 보자. 65년생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 77년생 타의 방식을 모방하지 말고 창의성을 발휘하라. 89년생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20, 84</p>	<p> 35년생 체계와 절차에 따름이 제일 중요하다. 47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59년생 특별한 의미의 징후들이 속속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71년생 다소 자극을 줄 필요는 있다. 83년생 큰 노력 없이도 수월하게 이익을 얻겠다. 행운의 숫자 : 34, 76</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 ☎010-9790-8237